한우·전통음식…담양 가을축제 주렁주렁

내달 1~3일 죽녹원서

대숲맑은 한우 축제

창평면선 슬로푸드 축제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천년담양 청죽향기 가득한 담양한우 이야기'를 주제로 10월 1~3일까지 '대숲맑은 담양한우 축제'가 개최된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담양 창평면에서는 같은 기간 전통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창평 슬로푸드·전통음식문화축제'가 열린다.

28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 죽녹원 앞 종합체육관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6회 대숲맑은 담양한우 축제'는 '담양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기간 동안 '한우 품평회'와 '한우 퀴즈왕 선발대회', '브랜드 홍보관', '가축마당 재현', '다문화 한우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본행사 및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담양한우 직판장과 숯불구이 셀프식당에서는 경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최고급 품질의 '대숲맑은 담양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 관광객 장기자랑과 군민 노래자랑을 비롯한 초대가수 공연과 예술단 공연 등으로 축제의 흥을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담양 창평면 창평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광장 및 면사무소 일원에서도 같은 기간 '제9회 창평 슬로푸드·전통음식문화축제'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맛과 전통의 멋 그리고 삶의 여유'라는 주제로 슬로시티 전통음식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창평의 대표 슬로푸드인 한과와 쌀엿을 비롯한 전통장류, 김치 및 친환경농산물 등 전시와 더불어 마을의 대표 음식과 특산품을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장터가 운영된다.

또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떡메치기와 한과 만들기, 고택체험과 같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슬로리음악회, 가곡음악회, 난타공연, 품바공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을 맞아 담양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담양군 6개 사업체 관광두레사업 선정

담양군은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2016년 관광두레사업' 주민사업체로 관내 6개 사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두레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고, 주민 역량에 적합한 관광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담양군 주민사업체는 먹씨곶감영농조합법인, 오방협동조합, 대나무공예인협동조합, 죽로차문화, 삼시세끼, 월산꽃차마을 등이다.

선정된 사업체에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 2018년까지 3년동안 관광 분야 관련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시범운영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멘토링,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만의 특화된 관광콘텐츠 발굴로 지역공동체에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민사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업체 선정으로 지역에는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고 관광객에게는 독특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코스모스 활짝 핀 담양의 가을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화방교 일대에 만발한 형형색색의 코스모스 꽃들이 한폭의 수채화 같은 가을 풍경을 그려내며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담양군 제공〉

상무대 전역군인, 장성서 귀농귀촌 꿈꾸다

40여명 대상 현장 체험교육

한우사육·사과재배 등 배워

장성 상무대 제대군인과 전역을 앞둔 군인들이 인생 2막 설계를 위해 귀농·귀촌 체험에 나섰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는 28일 "전역을 앞둔 제대군인과 가족 40여명을 대상으로 관내 우수 농가를 찾아 '귀농·귀촌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성군과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가 추진했으며, 장성 상무대에서 임관 교육을 받고 전역한 군인들이 제대 후 귀농·귀촌을 올바로 이해하고 불안감을 해소해 농촌에서 성공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 이론교육과 현장체험으로 구성해 농촌생활이나 농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한우 사육농가 및 사과, 상추 등 쌈채소 등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이끌고 있는 선진 귀농인들을 찾아 귀농의 현실을 생동감 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군인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귀농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농촌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하는데 장성군이 주는 행정적 지원이 예상보다 많아 용기가 생긴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옐로우시티 장성은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 최고의 귀농귀촌지 중 하나"라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제대군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꾸려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군 도시공원 8곳 편의시설 정비

연양공원 등 정자·산책로 만들고 주차장 신설

화순군이 도시공원을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원 정비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28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연양공원의 노후한 목재계단 22곳을 보수하고, 오일스테인 처리, 인공폭포 청소, 주변정리를 마친데 이어 도시공원 8곳의 전지전정, 풀베기 등을 완료했다.

또 화순의 대표적 휴식처인 남산공원은 10월 27일부터 열리는 도심 속 국화향연에 대비해 연초부터 공원조성 계획을 세우고 국화식재를 비롯한 정자설치, 산책로 등을 개설했다.

이와 함께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수만리생태숲공원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올해 말 완료 목표로 주차장 2곳, 화장실 1곳, 기타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시공원의 노후화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기자 byj@

30일~내달 2일 담양서 전국 드론 대축제

2016 전국 드론 대축제가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죽녹원 및 전남도립대학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드론 체험, 드론 레이싱 경기, 드론 사진·영상 공모 등 관람객 참여 중심 프로그램들로 기획됐다.

축제 개막식은 축제 10월 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축제기간동안 전남도립대학교 운동장 내에는 국내 드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드론체험부스가 마련되며, 드론 관련 생산품 전시와 정보교환은 물론 이곳에서는 드론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의 기회도 주어진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미래 산업을 선도할 드론의 활약상을 만나는 짜릿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장성경찰 초등학생 250명 교통안전교육

장성경찰은(서장 백혜웅)은 "최근 장성읍 중앙초등학교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장성군협의회(회장 정종연)와 함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바르게살기 장성군협의회 회원 및 초등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바르게살기 회원들을 상대로 농촌에서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 및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법을 소개하고, 초등학생들에게는 올바른 보행문화 및 교통사고 예방요령 등을 퀴즈와 기념품 등을 활용해 교육했다.

장성경찰은 또 교육 후 참석한 초등학생 150명 전원에게 안전우산인 투명우산을 선물하기도 했다.

박연식 장성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주민이 행복해하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지리산 온천지구 내, 호텔급 모텔, 사정상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다용도 개발 가능**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감정가 - 14억 (2016. 7월 감정)**
- 1순위(은행) - 6억 3천만원 대출
  2순위(개인) - 1억
- **매매 - 협의,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